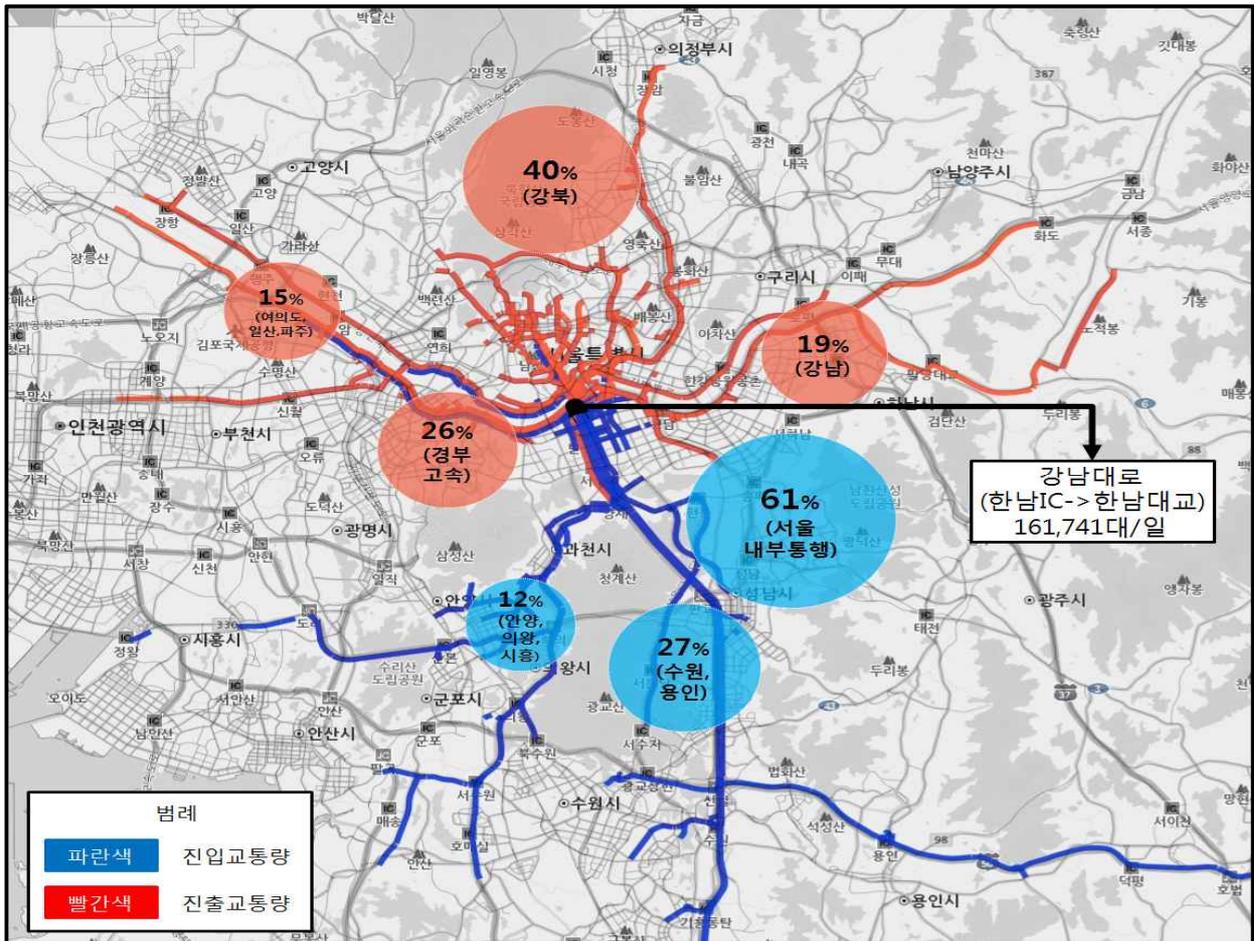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 9. 4(월) / 총 2매(본문3)	
담당부서 교통정책조정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자	• 과장 안석환, 사무관 김선옥, 주무관 구현승 • ☎ (044)201-3804, 3791, 3784 • 국가교통DB센터장 김주영, 부연구위원 천승훈 • ☎ (044)211-3167, 3328	
		보도일시 2017년 9월 5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산·방송·인터넷은 9. 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나라에서 교통량 가장 많은 도로가 궁금하다면? 도로·도시 추정 교통량 확인 가능·대규모 SOC 투자·소규모 교통개선 등에 활용

□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어디일까? 1위는 평일 161,741대/일(평균)의 교통량이 발생한 강남대로(한남IC→한남대교)로 나타났다. 특정도시 특정도로에서의 차량이 하루 몇 대나, 또 시간대별 얼마나 다니는지 알고 싶다면 빅데이터 기반 교통량 추정 기술을 통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공공부문 교통량 빅데이터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¹⁾를 융합하여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기존 현장조사의 경우 전국도로대비 교통량 수집량이 3%에 불과했으나, 이제 미관측 도로 교통량 추정알고리즘과 전국단위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통해 기존 조사의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국 95% 도로의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기존에 인력식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수집할 수 있었던 회전교통량에 대한 교통량 추정기술을 개발하여, 교차로에서의 방향별 교통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이를 통해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교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국가교통정책 전반에 유용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심 도시와 도로에 대한 추정 교통량이 궁금하다면 ‘View T 1.0’ 온라인 홈페이지(<http://viewt.ktdb.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분야를 넘어서 공유할수록 이용가치가 증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량까지 포함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SOC 투자사업 지원은 물론 소규모 교통개선사업까지 교통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현대엠엔소프트에서 제공하는 2015년 1년치 내비게이션 데이터 활용(87억 건/년, 예로 한 대 차량이 10개 링크를 통행하였다면 10건)

- 참고 1. 교통량과 내비게이션 통행량간의 관계 1부.
2. 우리나라 교통량 많은 도로 TOP10 1부.
3. 관측교통량과 추정교통량의 공간적 범위 비교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 정책조정과 김선욱 사무관(☎ 044-201-37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